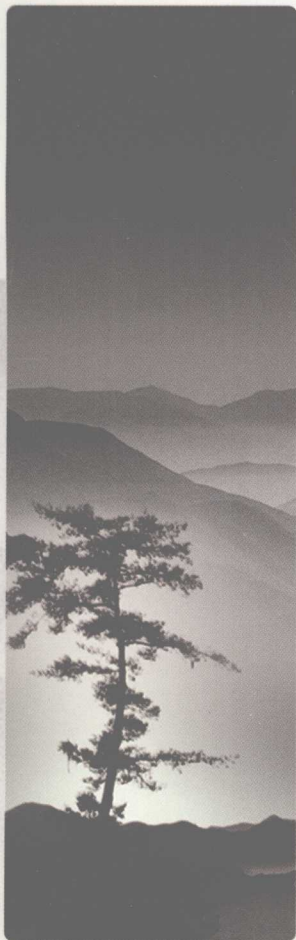


• 수필집 •



류언무
저

한생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운
무모함과 착실함을 저지르기도 한다. 부끄러움을 두고
아니 할수가 없어 쓰는 수필이야말로 고통이다.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는것 또한 인간의 본능이거늘 어느 누구를
세상사람들앞에 자기영광이를 드러내려 할가. 그 영광이를 보고
자연이러니저러니할것이니 그것이야말로 날뜨기운 부끄러움이다.

회한

연변인민출판사

수필집

회 한

류원무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인덕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悔恨: 朝鲜文 / 柳元武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609-8

I. 悔… II. 柳… III. 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
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81328号

悔 恨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1.75 字数: 3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09-8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2.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소설농사, 동화농사를 하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수필을 쓰다보니 책 한권을 묶기에 이르렀다. 소설을 쓰기는 고달파도 수필 쓰기는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격식의 구애가 없이 생각이 펼쳐지는대로 필을 달리노라면 정감의 흐름에 자아도취되어 심성이 느긋해진다.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찬양과 분노... 파란만장의 인생살이 느낌을 두고 작자는 숯불처럼 타야만 한다. 타는것이 뜨거워도 용사와도 같은 승화의 기분에 몸이 다니 이 아니 즐거움인가.

그러하기는 하지만 수필을 쓰기가 하나의 심성의 감미로움만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해야 한다. 자신을 뉘우치며 자신을 해부할 때의 비애와 고통, 수필은 또한 하나의 아픔이다. 아픔으로 각성을 불러온 수필은 흔히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다. 진짜 용사라고.

그러나 자기를 해부한다고 하여 다 빛이 나는것도 아니다. 한생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운 무모함과 차실을 저지르기도 한다. 부끄러움을 두고 아니 쓸수가 없어 쓰는 수필이야말로 고통이다. 자기의 약점을 숨기려는것 또한

인간의 본능이거늘 어느 누군들 세상사람들앞에 자기 엉덩이를 드러내려 할가. 그 엉덩이를 보고 자연 이러니저러니할것이니 그것이야말로 낯 뜨거운 부끄러움이다.

그러한데 나의 인생살이는 나로 하여금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니되게 몰아붙였다. 세상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고 루명도 벗어보려는 자위의식이 붓을 들게 하였는지, 가슴속에 서리고 맺힌 번민과 비애, 고통과 분노를 소리쳐 풀어보려고 붓을 들었는지, 개혁개방의 위대한 진통속에서 한 줄기 원시자금축적의 적라라함을 보여주려고 붓을 들었는지 또 아니면 성스럽다고 하는 문단의 그 무엇도 보여주려고 붓을 들었는지, 나는 그러루한 수필을 무려 열다섯편 썼었다. 쓰기는 했어도 발표하자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서랍에 넣어 두었었는데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번 수필집에 넣었다. 그래서 수필집 이름이 《회한》이다.

참으로 얼굴이 뜨겁다. 이제껏 못난 글, 장편, 중편, 단편, 실화, 수필, 칼럼, 평론 등 5백여만자를 여러 신문, 잡지에 350여편 발표하고 책도 한 20권 펴내면서도 내 글이 못났다고 얼굴을 붉힌적은 없었다. 오히려 내심속의 자아감각은 어느 때고 나쁘지 않았다. 그 글들이 출중하지 못하고 그저 그러루하게 쓰이었다고 자인하는 자지자명(自知自明)의 수양쯤은 있어 남앞에서 어깨를 살리며 붙어대는 일은 없었지만 못나도 제 새끼가 곱다고 글이 다 되기만 하면 서슴없이 편집부로, 출판사로 날려보냈다. 그랬는데 이번 《회한》만은 용기를 내어 펴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제판에는 작가의 첫째가는 미덕이 정직과 성실일진대 자기는 숨겨두고 남만을 해부하고 남만을 웃어주고 남만을 타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냐고. 오

호라, 이 또한 나의 우직한 성실과 정직일가. 하나의 얼굴만 아는 그 천성을 어이할고. 그래서인가 처세술이 빵점이란 말도 듣는다.

나그네 인생살이 70년에 어느덧 고래희고개에 올라섰다. 그 70년이 새삼스레 아득히 돌이켜진다. 인생을 두고 일장춘몽이요, 아침이슬이요 하고 한탄하기도 하지만 나라는 인간은 2만 3천여일을 아글타글 혈떡이며 살아와서 그런지 짧고 시고 쓰고 또 달기도 한 그 인생이 짧지 않게만 느껴진다. 일장춘몽이요, 아침이슬이요 하는 사치한 성구를 외우는이들이야 아수함이 많아서 그런 애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히려 혼연하다. 이만하면 오래 잘살았지 뭐야! 한권의 책에다 못난 제 얼굴까지 자상히 드러냈으니 그 또한 제멋에 살았다고 해야지.

성실했음에도 등글지 못해 어울리지 못하고 정직했음에도 단순해서 떠밀리고 옳은 말을 했음에도 목소리가 높아 미움을 사고 불어대는 재간을 못 배워 어디 끼이지 못하고 개여올리는 재간을 못 배워 한몫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여 룡간에 들고 괜히 목대를 세워 꺾이고 집단속을 못해 만신창이 되고... 그래저래 백발이 성성하도록 여물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회한》, 그럼에도 글쓰기에 미쳐 산 그 아집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또 이 수필집을 펴내는것일까?

인생살이 쓰기도 하네.

2007년 1월

생활이 만화처럼 나를 변형시켜놓고 희롱하더라도
그속에 나의 개성만 분거져있다면 나는 족하다.
생활의 희롱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재미,
자기를 알아야 하는것이 작가의 자세가 아닐가?

차 례

머리글	1
-----------	---

제1부 자화상

아버지	3
모시적삼	9
동년시절의 비애	15
불효자식	22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	29
나의 선생님들	33
나의 은인	38
미역국	43
술 한모금	47
런주포	50
나의 첫 책	54
집념	58

우연과 필연	60
수염은 자라건만	66
나의 친구	70
욕에서 땀어진 친분	73
회한	77
로인무도장 일각	97
눈물의 아름다움	107

제2부 고 해

날벼락	113
일락천장	120
고아의 비극	125
어중이떠중이들	129
상 받던 날	132
메가폰	136
고마운 녀인	140
고독	144
두문불출	152
답사의 길	155
그날도 그리워	160

제3부 사색의 쪽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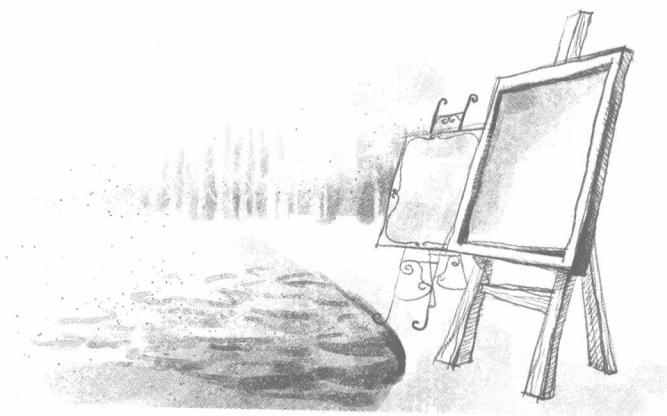
고양이성격	167
개의 성격	171
소의 노래	175
인생의 참뜻	179
남자의 집	182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	189
인생은 후회의 루적	193
눈물이 났습니다	197
한숨이 나갔습니다	202
가득나무의 신고	206
꽃과 단풍	209
황금의 부끄러움	212
불안과 공포의 이미지	215
숨박꼭질하는 나	220
상투자랑	226
바람의 탄식	229
가짜망발	233
넌다란 구들에 두다리 쪽 뺨고	236
자루가 찢은 호미 그리고 비탈린 소나무	244
중국장기와 조선장기	249
넋다란 삼짱문	255
이단자의 체념	258
고추장의식	262
선비들의 청빈관	266

자랑일가, 멋일가?	272
흐린 날씨, 흐린 기분	277
작가와 편집, 편집부	285
소설이란 무엇인가	289
작가의 개성	293
하얗게 나는 두루미	304
미혹	308
아름다움의 창출	313
순직	317
박복한 시인	322
붓을 빼앗긴 한	326

제4부 두만강 천리

제1경 적봉발원지	333
제2경 군함산	337
제3경 호곡령	341
제4경 선경대	344
제5경 두만강의 야광주	347
제6경 일광산	350
제7경 경신	353
제8경 방천	356
류원무 년보	359

제1부 자화상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진가를 알게 된것이 언제부터이던가. 내가 아버지라고 불리워온지도 어언 32년에 나고 할아버지라고 불리운지도 벌써 4년철이 되지만 아버지 진가를 되새겨보는것이 아마도 지금인것 같다. 남자로 태어나서 장가를 들고 아이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되기 마련이지만 그 아버지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애로운 엄부! 나는 나에 비추어 늘 아버지를 그려본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하직한지도 어언 38년. 고달픈 소작살이에 42년이란 짧은 한생을 보내고 진가튼 뒤산기슭에 묻혀버린 아버지. 이름없는 그 외로운 무덤이 지금은 땅에 가라앉고 잡초가 무성하여 형체조차 찾아보기 어려울테고 그래서 불효자식이라고 자탄하고있는 나. 바로 그때문인지 나의 머리속에는 아버지의 그 영상이 날이 갈수록 또렷이 잡혀든다.

아버지의 성함은 류문언(柳文彦). 아버지는 근면한 농민이였고 배움에 극성스러운분이셨다. 자신은 서당문앞에도 못 가보셨지만 그 한을 풀어보려고 고된 일속에서도 “천자문”을 사다놓고 아침저녁으로 한자두자 익혀서 《천자문》을 떼 아버지

였다. 그래서였던지 배움에 들어가서는 맡아들인 나에게 조금
치도 에누리 없었다.

내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해인 일곱살 나던 해였다. 아버
지는 새벽마다 나를 앞에 앉혀놓고 “하늘 천(天)”, “따 지
(地)” 하고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놈의 넓적글자
가 왜 그렇게도 외워지지 않던지. 외우지 못하면 의례 그 우악
진 손이 내 볼기짝을 갈기였다.

“이놈아, 어린 동생이 외우는데 네가 못 외워?”

사실 나는 동생때문에 그 무서운 매를 더 맞았다. 그 동
생이 네살 나던 해 홍진을 하다 죽었지만 동생은 충기가 정말
좋았다.

소학교 1학년을 다니던 해였다. 진가툰에서 무성촌소학교
로 가자면 5리를 걸어야 하였다. 그날은 어째서 그렇게도 학
교 가기가 싫던지. 나는 중도에서 놀다가 한낮이 되기도전에
이른봄의 따스한 해별이 비쳐드는 언덕밑에 앉아 도시락을 먹
어치웠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
는 울면 머리가 아프던 일이 생각나서 영영 혼자 울어보았다.
한참 울고나서 머리를 짚어보니 아나나다를가 이마에서 열이
좀 나는것 같았다. 나는 움지 댔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되짚어
왔다.

아버지는 옷방에 앉아 새끼를 꼬고계셨다. 나는 꼴이 아파
돌아왔노라고 하였으나 아버지의 엄한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
였다. 아버지는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나는 서슬이 등등
한 아버지의 그 눈길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아버지는 새끼를
모아 쥐고 내 종아리를 무작정 후려치였다. 그래도 직성이 풀
리지 않던지 두팔을 옆으로 펼쳐들게 하고 벌을 세웠다. 나는

어깨박죽이 물러나는것 같아 참기 어려웠으나 조금이라도 팔이 처지는것 같으면 아버지가 새끼를 거머쥐고 종아리를 후려치는 바람에 꿈쩍 못하였다. 나는 끝내 영영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새끼를 다 풀 때까지 벌을 서야 한다는것이였다. 어머니가 보다 못해 울면서 나를 정지로 끌어내려가서야 그 흑형에서 벗어날수가 있었다. 아, 아버지의 마음, 그때만 해도 나는 아버지가 지독한분이라고만 생각하였다. 나는 버릇이 툭 떨어졌다. 나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못한 녀석이 되였다.

그러던차 아버지의 그 넓은 잔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온일이 있게 되였다. 그날은 하학하자 소나기가 퍼부었는데 날이 어둡도록 그치지 않아 나는 친구의 집에 묵게 되였다. 내가 단잠이 들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셨다. 번개가 번쩍이고 비가 짹짹 퍼붓는 캄캄한 밤에 도롱이를 걸치고 아버지 잔등에 업힌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아버지 잔등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다.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된듯하였다. 장편소설 《봄물》에 역석의 아버지가 비에 갇힌 아들을 밤중에 업고 돌아오는 세절이 바로 이 이야기다.

나는 아버지의 단속에 공부를 하고 오늘 작가로 되였다. 나만 아니라 우리 마을 아이들도 아버지가 나서지 않았으면 광복이 난후에 학교를 제때에 다니지 못했을것이다. 진가튼은 백여호 잘되는 큰 동네이지만 조선족은 불과 스무나문호밖에 안되어 학교를 세울 형편이 못되였다. 그런 때 농회문교위원을 맡고있던 아버지가 발 벗고 나서서 23명밖에 안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두분을 모셔다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며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게 배워서 나는 1949년에 념안조선족중학교

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겨레의 아버지들이 다 그러하듯 나는 아버지도 이름없는 교육가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아버지와 함께 나무하러 갔다오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철이 들면서부터 앞산에 올라가 나무 몇단씩 해서 아버지 일손을 도운 나지만 아버지와 함께 소수레를 가지고 나무하러 가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나는 신바람이 나서 나무를 하다보니 집으로 돌아올 때는 사지가 나른하여 걸음이 겨우 되었다. 그때 벌써 몸이 좋지 못했던 아버지는 나무수레에 앉아오면서도 나보고는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타박타박 수레옆을 따르며 행여나 하고 아버지를 자주 쳐다보았으나 아버지는 엄한 눈길로 나를 내려다볼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서운하던 눈길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포근한 부드러움으로 안겨드니 엄부의 눈길이란 참으로 별맛이다. 마음속 깊숙이 간직된 어버이 사랑, 사랑의 진가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녀안조선족중학교를 다닐 때 왕복 40리를 짧은 두다리로 통학할수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나의 인생행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의 아버지 눈길을 돌이켜보곤 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들대접을 받은것은 고중에 진학한 다음이었다. 아버지도 내가 출세하게 되었다고 여기셨던지 평등하게 대해주며 집안일을 이것저것 상론해주었다. 막내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름을 무어라 지으면 좋겠느냐고 나와 토론하였다.

“너의 행렬은 ‘호반 무(武)’자 돌림인데 편지거래가 끊어졌으니 조선서 사촌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야 어찌지. 자칫하다간 같은 이름이 나올수도 있으니 너의 형제는 ‘으뜸 원(元)’자 돌림으로 ‘배울 학(學)’자를 붙이면 어떨가?”